

# 믿음으로 승리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4).



## ✦ 주제로 들어가기 ✦

### 1) 잣을 따는 청설모

산에 야생하는 잣나무에서 잣을 얻으려면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 장대를 사용하든 사람이 직접 올라가든 잘 떨어지지 않는 잣을 따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잣나무 숲에 청설모가 많다면 굳이 그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청설모들이 많은 잣송이를 땅에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그저 주우면 된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파이드온의 수련원이 위치한 산에는 많은 청설모가 산다. 이들 때문에 가을에 수련원을 가면 많은 잣을 모을 수 있다. 처음에는 ‘이게 웬 황재인가?’ 하고 떨어진 잣을 주우며 호들갑을 떨었다. 노력과 수고도 하지 않은 채 비싼 잣을 얻게 되었으니까. 길모양은 얼마나 크고 튼실한지 모른다. 하지만 껍질을 까보면 실망스럽게도 그 속은 비어 있거나 말라비틀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멀쩡해보이는 잣도 그릇에 담아 물을 부으면, 거의 대부분이 물 위로 떠오른다. 쪽정이인 것이다!

## 2) 쪽정이 신앙

크고 튼실한 겉모습과 달리 속이 비어 있는 잣나무 열매를 보며, 오늘날 한국교회의 본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한국교회의 영적 상태, 다음세대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된다. 겉모습은 멀쩡하다. 때로는 매력적이고 화려하기까지 하다. 종교성도 있어 보이고, 예배와 의식에 참여하며, 주일을 지키고 교회 사역에 헌신하며, 신조들을 외우고 교회 생활에 익숙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정작 신앙의 핵심은 알지 못하는 쪽정이다.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며, 왜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하고 모호하며 무기력하다. 주님과 동행하는 관계는 교회에 머무는 시간에만 의미 있을 뿐, 삶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가치와는 무관하다. 우리 아이들은 신앙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눈치를 보고, 무언가에 눌린 것처럼 자신이 없으며, 그 시간이 끝나기만을 기대한다. 사회에 나가서는 놀림, 타협, 굴복, 낮은 자존감, 실패와 그 실패에 대한 죄책감이나 후회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사탄에게 사로잡혀 놀아나고 까불리고 있다면 너무 과한 표현일까?

### ✦ 우리의 현실: 무기력증 ✦

사탄에 까불리는 현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기력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까부름에 저항하거나 맞서려는 의지가 없음은 물론이고, 심지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그리고는 아무런 저항 없이 순응하고 만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죄의식도 갖지 않는다. 종종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세상 풍조에 휩쓸려 후회와 체념을 반복하며 살아간다.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기독교를 향한 공격에도 별다른 저항 없이 숨어버린다. 거의 중병에 걸린 모습이다.

### ✦ 무기력증의 증상: 3무(無) ✦

#### 1) 무지

그리스도인의 모양은 있으나 사탄에게 까불리며 살아갈 때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일까? 첫 번째 증상은 신앙생활에 대한 무지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생활을 해야 하며, 이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사탄은 밀 까부르듯 하나님의 사람들을 까부르려고 달려든다. 하지만 우리의 다음세대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들은 예수님과 믿음을 고

백하는 것에서부터 부담과 두려움을 갖는다. 부담이 되는 이유조차 모른다. 그저 이 세대의 상징인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라는 메시지를 따른다. 대다수 아이들이 당당히 자신이 신앙인임을 고백하지 못한다. 부담감에 말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영적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찾아오는 영적 싸움을 한두 번 포기하거나 회피하고 패배하게 되면, 그것은 곧 길이 되고 습관이 된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이후에 부담스러워진 신앙을 포기해버린다.

## 2) 무의미

두 번째 증상은 무의미이다. 상대방의 교인과 다음세대는 신앙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즉, 영적 싸움의 이유와 싸움 뒤의 승리, 그리고 그 승리가 주는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다. 영적 승리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신앙은 그저 내가 잘되고 축복받는 한 방편일 뿐, 신앙 자체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신앙이 목표가 아니라 수단인 것이다. 그리고 신앙이 단지 수단이 될 때, 결국 삶의 의미를 세상에 두게 된다.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의 상대방이 이렇게 살아간다.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노리는 전략 중의 전략이다. 세상에 의미를 두는 순간, 이미 신앙의 가치는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 3) 무기력

세 번째 증상은 더 이상 아무런 신앙적 시도를 하지 않는 무기력이다. 신앙의 무기력에 빠지는 것이다.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만 주님을 찾는다. 신앙생활이나 성숙을 위한 시도의 필요성이나 의미는 항상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저 여유가 있거나 특별한 동기가 있을 때 어쩌다 시도한다. 점차 믿음은 기쁨이나 은혜나 능력이 아니라 효용 없는 것이 된다.

## 4) 패배주의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영적 승리를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게 된다. 교회를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느끼지도 못하며, 신앙의 깊이나 귀함을 알지 못한 채 부모를 따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즉 패배주의 신앙에 빠진 그리스도인이 되고 만다. 사탄의 전략이 성공한 결과이다.



## ✧ 무기력증의 원인: 영맹 ✧

글씨는 보이나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문맹이라 하고, 컴퓨터를 앞에 두고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은 컴맹이라고 한다. 같은 맥락에서 신앙인이면서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영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특징은 주님과 관계가 모호하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신앙에 대한 그들의 대답은 늘 모호하고 불분명하다. "천국이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이 사실이 자신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단정을 짓지 않는다. 분명하지 못한 깨달음에 영적 싸움을 맞닥트리게 된다면 준비되지 않아 이 싸움에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를 알지 못하고 그에 따른 빼앗길 수 없는 영광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 ✧ 4가지 영맹 ✧

'영맹'인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첫 번째,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모른다. 즉, 자신이 영적 전투에 참여한 군사라는 사실을 모른다. 신앙을 갖는 일은 기쁘지만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음을 알아야 한다. 신앙을 가지면 두려움과 부담, 회피하려는 마음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 우리는 '영적 군사'가 되어야 한다. 즐겁고, 축복받는 행복한 신앙인의 모습만 떠올린다면 하늘의 고귀한 백성이라는 신분보다는 나보다 더 잘나고 많이 가졌으며,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되고 만다.

두 번째,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모른다. 얼마나 많은 성도가 사탄에게 유린당하고 노략질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만 정작 자신은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빼앗겼는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탄을 누르고 세상을 이기셨는데, 정작 우리는 적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패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사탄과 죄라는 것을 아이들은 알지 못한다. 원수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분리되게 하려 하고, 신앙의 의미를 퇴색시키며, 불순종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부추긴다.

세 번째, 싸움의 전략을 모른다. 어떻게 싸워야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영

적 군사인 우리에게는 하늘의 군대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지만 그 특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투를 완수하는 방법을 모른다. 끝까지 승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공고히 세우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다.

### ◆ 무기력증의 치료약: 여호수아서 ◆

그렇다면 어떻게 영맹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가? 우리는 특별한 방법론이나 인간적인 경험이 아닌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 해답을 갖고 계신다. 우리는 단지 그분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눈을 열어 찾고, 귀를 기울여 듣고,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문제에 대하여 여호수아서를 통해 대답하신다.

여호수아서는 그 의미에 있어서 크게 정복 과정(1-12장)과 정착 과정(13-24장)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네 개의 장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장면이다(1-5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출애굽한 2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해야 했다(1세대는 민수기의 광야 생활에서 모두 죽었다). 이것은 그들 앞에 놓인 가나안 정복 전쟁, 즉 이방 민족을 멸절시키는 전투를 감당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아울러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홍해 사건에서 경험한 구원의 은혜를 요단강을 건넌으로써 경험했다. 자신들의 신분과 자신들 앞에 놓인 싸움을 이해하고 기꺼이 감당하려 한 것이다.

두 번째는 약속하신 땅을 정벌하고 정복하는 장면이다(6-12장). 이 싸움에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었다.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판정은 섬멸이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정복 전쟁은 활과 창, 혹은 전략의 싸움이 아닌 믿음의 싸움이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이전 민수기에서 이미 정복을 끝마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민수기에서는 실패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불신앙이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며, 가나안 족속은 밥이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갈파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않았다. 하지만 여호수아서에서는 다르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커다란 전투를 앞에 두고도 회복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할례를 행하였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들이 첫 번째 전투에 나섰던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비이성적, 비전략적인 방법을 따랐을 때 승리를 거머쥌 수 있었다. 높이가 7-8미터나 되는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한 발의 활도 사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을 때 그들은 승리했다. 남쪽과 북쪽을 칠 때에는, 이스라엘의 칼과 활에 죽은 가나안 족속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이들이 더 많았다. 오합지졸을 데리고 두려움에 가득 찬 전쟁을 이끌던 여호수아가 만난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었다. 심지어 하나님은 해를 멈춰 세우시면서까지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싸움이며, 전략의 싸움이 아닌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민수기의 싸움이 불순종으로 인한 실패였다면, 여호수아서의 싸움은 믿음의 순종으로 인한 성공과 승리인 것이다.

세 번째는 약속한 땅을 차지하고 지키는 장면이다(13-23장). 즉, 큰 전투는 끝나고 땅을 차지했지만 각 지파의 영토 안에서는 여전히 작은 전투가 남아 있었다. 이는 소방 대원들이 산불이 나면 큰불을 모두 진화한 뒤, 남아 있는 잔불을 끄기 위해 계속 작업하는 것과 같았다. 이와 같은 과정이 없다면 완전한 승리를 쟁취할 수 없다. 승리를 누리려면 남아 있는 작은 전투를 계속해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전투를 계속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들은 계속되는 승리를 경험했다. 이렇게 해야만 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었다.

네 번째는 땅을 영원히 지키는 방법을 보여주는 장면이다(24장).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이 끝나고 지파별 정착이 끝난 후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섬길 것을 명령하고 결심하게 한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결단에서 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여호수아서의 전개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네 가지 장면은 무기력증을 치료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준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을 좋아하거나 환영하지 않았다. 그들 주변의 모든 족속은 그들과 싸우려 들거나 피해버렸다. 심지어 같은 뿌리인 에돔 족속마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지경을 통과

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버거웠고, 힘들었으며, 위기였고, 난관이 있었다. 그들은 집 대신 텐트에서 자야 했고 먹을 것이 없어 하늘에 의지해야 했다. 또한 사방에 깔린 적 때문에 밤잠을 설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 가운데 두고 마치 군인처럼 조직을 짜서 행진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무기력하게 있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이 누구인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았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며, 축복만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행태를 보이는 무기력증에 빠진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다음세대에게 여호수아서는 답을 제시하고 있다.

## ◆ 여호수아서와 에베소서 ◆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문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서의 교훈을 신약의 렌즈로 이해해야 한다. 유추와 건너뛴을 통해 구약을 바로 적용할 수도 있지만, 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하려면 신약의 말씀을 통해 그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는 전환과 적용 과정이 필요하다. 여호수아서는 에베소서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 좋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는 군사가 되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것을 권고한다. 그래야 능히 우리의 원수 사탄과 죄의 공격을 막아내고 악한 날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여호수아서를 에베소서와 짝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내용이 된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기업인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 열고 믿음으로 얻었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믿음으로 그분의 기업이 된 것이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방법으로 승리를 얻었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도 믿음으로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4). 총사령관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잔불을 끄듯 매일 작은 전투에 매달릴 때에도 하나님께만 순종함으로 승리를 지켰듯이, 신약의 성도인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요

15:5).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성령이 다스리시는 삶을 통해 계속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승리를 위해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권한다.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그분과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하는 것이다.

### ❖ 무기력증을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

우리는 어떻게 무기력증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여호수아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며, 예수님은 영원히 동일하심을 (히 13:8) 기억해야 한다. 여호수아서의 전투는 우리의 영적 전투와 흡사하다. 그러므로 무기력한 패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방법 1:** 우리의 신분과 영적 싸움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의 다음세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사탄과 싸워야 한다. 이 싸움은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고 일어나지 않거나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닌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군사인 것이다.

**방법 2:**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위협을 감수하며 전쟁 중에 할례를 시행했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에도 순종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었다. 그렇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순종의 싸움이다. 전략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인 것이다.

**방법 3:** 승리를 계속하기 위해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스라엘은 정복 후에도 계속 작은 전투를 벌이며 땅을 차지했다. 여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람의 눈에 보기에 귀한 것들까지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짓지 않았기에 승리를 누렸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예수님을 가까이하는 대신, 자신을 즐겁게 하는 죄악에 패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가까이하고 죄는 멀리함으로 승리를 유지해야 한다.

방법 4: 영원한 승리를 위해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한다. 사명을 다한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선택과 선언을 하게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는 결단이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영원한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한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꾸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한다.

### ◆ 여호수아 나무(Joshua Tree)를 꿈꾸며 ◆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 LA 동쪽에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Joshua Tree National Park)이 있다. 공원 전체가 사막과 암석으로 이루어진 이곳에 선인장이 아닌 나무가 자란다. 이 나무의 이름은 조슈아 트리다. 1-2월에만 약간의 비가 내리는 척박한 사막에서 이 나무는 길면 1,000년을 넘게 산다고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나무의 나뭇잎은 종려나무 가지를 짧게 꽃이놓은 듯한 모양이다. 이 잎을 통해 대기 중에 있는 습기를 빨아들여 수분을 공급한다. 2-3미터나 뺏은 나무의 뿌리는 주변 수십 미터 땅 속의 습기를 빨아들인다. 그리고 최소의 수분만을 방출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기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견고한 나무로 긴 세월 동안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신앙적 패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한다. 우리의 환경은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밀 까부르듯 까불기 위해 달려드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극복해야 할 믿음의 싸움에 대해 가르쳐야만 한다. 정체성이 분명하고, 다가오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가장 확실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생명을 유지하는 조슈아 트리처럼, 강건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함께 열정을 쏟고 땀 흘리기 원하는 모든 사역자와 교사를 초대한다.